

## 민주노총, 단일한 정치방침·총선방침 결정

14일 77차 임시대의원대회 열어 ... 노동자정치세력화·윤석열 정권 퇴진·2026년 연합정당 건설 목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아래 민주노총)이 노동자정치세력화와 윤석열 정권 퇴진, 2026년 지방선거 전 연합정당 건설을 목표로 한 단일한 정치방침과 2024년 총선방침을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9월 14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77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었다. 재적 대의원 1,849명 가운데 957명이 참가해 개최했다. ‘민주노총 정치방침’과 ‘민주노총의 단결과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 실현을 위한 총선방침’ 안건에 대해 재석 대의원 933명이 투표했고, 82.5%인 770명이 찬성했다.

이번에 결정한 ‘민주노총 정치방침’은 ▲ 1. 민주노총은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의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높여 나감과 동시에 직접정치, 광장정치를 통해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 ▲ 2. 민주노총은 진보정당을 포함하여 진보 정치세력들의 결집된 힘을 만들어 노동자 집권과 사회변혁을 목표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 ▲ 3. 민주노총은 현장과 지역의 힘을 모아 내는 방식으로 한국 사회 체제 전환과 진보개혁을 위한 대중투쟁과 정치 개혁투쟁을 동반하



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

▲ 4. 민주노총은 농민, 빈민 등 진보 민중세력 및 진보정당과 상호 존중하고 단결, 연대하여 노동중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 ▲ 5. 민주노총은 다양한 진보적 가치와 지향을 존중하며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 수준과 단결을 높여내고, 이를 토대로 노동중심 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한다 등이다.

함께 결정한 ‘민주노총의 단결과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 실현을 위한 총선방침’은 ▲ 1. 민주노총은 2024년 총선에서 노동자 직접정치, 광장정치 구현을 위해 아래로부터 조직적 결의와 역량을 모아내고,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을 실현한다. 이를 토대로 윤석열정권 퇴진과 불평등체제 전환 투쟁을 확대·강화하고, 진보정치세력이 위력적인 대안 정치세력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 민주노총은 조직 내외의 다양한 진보적 가치와 지향을 존중하며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 실현과 단결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정당과 신뢰와 합의로 연합정당 건설에서부터 정책연대, 후보단일화, 공동 선거운동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총선 공동 대응을 적극 추진한다. ▲ 3. 민주노총은 현장과 지역에서 친자본 보수양당체제 타파를 위한 정치제도개혁 투쟁과 직접정치, 체제전환운동 대중화를 위한 정치사업을 전면화하고,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진보정당과 ‘한국사회대전환 민주노총·진보정당 총선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한다. ▲ 4. 민주노총은 친자본 보수양당 지지를 위한 조직적 결정은 물론이고 전·현직 간부의 지위를 이용하여 친자본 보수양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5. 민주노총은 총선평가에 기초하여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정치방침(안) 이행을 위해 진보정치세력과 공동 논의기구를 구성한다. 공동 논의기구는 신뢰와 합의로 운영하며 2026년 지방선거까지 연합정당 건설을 목표로 한다 등이다.